열린세상

정치권의 아전인수식 '명분 싸움'

정정용
이사 겸 논설주간

세상 대부분의 일이나 사람의 행동엔 '명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명분'의 사전적 의미는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군신, 부자, 부부 등의 사이에 서로가 지켜야 할 도덕상의 일'로 규정돼 있다. 즉 '일을 꾀할 때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명분은 사람이 특정한 행동이나 일을 도모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필요충분조건으로, 대부분 이를 따지고 또 갖추려 노력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특정한 이유나 조건도 없이 곧잘 원칙을 깨뜨리거나 명분이 미흡한 '무리수'를 두다 비난을 자초하거나 부메랑을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

요즈음 뉴스들을 보면 '명분'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뉴스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가열되며 명분싸움이 전개되며 뉴스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앞두고 또 '이합집산'

사실 예부터 '명분'이란 용어가 가장 많이 등장·활용된 부문은 정치권이라 할 수 있다. 정치인들에게 '명분'은 생명줄과 같은 것이어서 각 정파끼리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곤 한다. 일반인이 보기엔 하찮고 의미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정치권엔 예나 지금이나 그들만의 '명분 쟁투'가 벌어지기 일쑤다.

엊그제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소속돼 있던, 그래서 소위 호남을 텃밭으로 하고 있다는 민주평화당이 분당됐다. 천정배·박지원·유성엽·장병완·김종회·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 등 10여명이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것이다. 탈당의 깊은 속내야 알 수 없지만 사실상 당이 와해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탈당의 명분으로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되겠다"고 내세웠다. 이들은 앞으로 제3지대에서 신당을 추진한다는 목표 하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 소위 '대안정치'라는 정치 세력을 구축, "기존의 조직과 관성, 정치문화를 모두 바꾸는 파괴적 혁신과 통합을 통해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을 구축하는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만을 놓고 보면 탈당 명분이 그럴듯하다.

하지만 인터넷 상 댓글이나 여론 등을 집약해 보면 그들의 탈당 행위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다. 그들은 '대안정치세력을 구축, 변화와 희망이 밀알이 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활동해 왔던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으로는 변화나 희망의 밀알이 전혀 되지 못했다는 모순이나 다름 아닌가?

세부적으로도, 그들은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을 형성, 다당제의 틀을 구상하고 있다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다당제가 성공한 사례를 손으로 꼽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대안정치 세력으로서 제3지대 신당을 성공시키려면 인물이나 명분, 어젠다가 분명해야 하나 최소한 현재까지는 이 같은 점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선거를 8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탈당을 통한 또 하나의 정치결사체를 만든다는 것은 선거용이라는 명분 외엔 설득력이 약하다. 탈당 명분이 국민들이나 해당 지역구민들의 의사와 일치하는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한 명분인지 의문

보편적이고 광의적인 '명분'은 소아적이고, 자기중심적 명분을 덮으려는 속성을 지닌다. 이번 민주평화당 분당사태에서 잔류파나 탈당파 모두, 이 같은 분당사태로 이르기까지 어느 쪽 책임이 더 크냐는 것을 떠나 탈당 자체에 사시적인 시각이 더 부각돼 보이는 것은 왜일까?

어찌 됐건 향후 그들의 행보를 지켜보면 알겠지만 대안정치 세력을 자처한 그들이 차라리 '큰 정치'의 정정당당한 정의를 지향하며 국민들에게 호소할 순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보편타당한 명분이 설득력을 얻고, 또 이 같은 명분을 놓고 정정당당한 경쟁이 지배하는 사회나 국가가 바람직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기고

도심 속 오아시스, 안전하고 깨끗하게

김종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검사과장

도시가 거대해지면서 새로 건설되는 도로·고층건물 등은 도시환경을 더욱 시멘트 콘크리트 덩어리로 만들고 시민들의 정서 감각을 점점 메말라가게 한다. 아스팔트와 시멘트 숲으로 이루어진 도시는 점점 자연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상황에서 분수는 도심 속 오아시스로, 그 가치는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분수는 고대 서양에서 정원이나 궁전과 도시 디자인에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다. BC 3000년부터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아시리아 왕국에서는 그 지역의 건조하고 더운 기후조건에 대처하고, 왕궁의 호화스러운 치장을 위해 솟아 나오는 분수와 계단식 분수가 설치됐다.

12세기경부터는 수도원이나 성내의 궁정 등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14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에서는 고대 로마 시대의 웅장한 분수 예술을 다시 살려 탁월한 디자인으로 표현했는데, 특히 로마에 있는 대표적인 분수로 나보나(Navona)광장의 트레비(Trevi)분수를 들 수 있다.

한국에는 20세기에 들어와서 경관의 미를 살리기 위해 인공폭포 개념의 분수가 곳곳에 만들어지다가, 현재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까지 직접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바닥분수 등의 수경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이런 수경시설들은 인공적인 도시환경 속에서 시민들에게 물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휴식공간으로서 자리 잡아가면서 경관의 미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물놀이형 수경시설들이 증가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에 대한 염려도 커지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하는데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닥분수이다. 아장아장 걷는 유아에서부터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솟아오르는 바닥분수 물줄기 속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행복하게 한다. 그런데 솟아오르는 물을 입을 벌리고 받아 먹으려고 애쓰는 어린이들을 보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저 물이 얼마나 깨끗할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닥분수 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용수는 대부분 수질 측면에서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저수조에 저장된 물이 위로 솟아 나와 이용자의 몸을 적시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져 저수조에 들어가 재이용을 반복하는 형태로 설계돼있어, 수질관리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그리고 바닥분수는 공원 등에 설치돼 사람, 동물 등의 이동통로로 접근이 쉽고, 비가 오면 토사 및 주변 오염물질 등이 그대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자칫 오염된 물이 유아와 어린이의 피부에 닿거나 입이나 호흡기에 유입될 경우, 피부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물환경보전법'에 근거, 광주지역에 신고·설치돼 있는 공공 및 민간시설 물놀이형 수경시설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가동 기간 대장균, 탁도 등 법정 기준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바닥 분수시설의 효율적인 수질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실태조사를 시행해 용수교체 시기, 저수조 청소 주기, 저수조 용량별 소독제 약품 투입량 및 용수의 재이용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바닥분수의 소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치구에서도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울타리 설치, 주기적인 저수조 청소, 소독 등 수질관리와 이용자 준수사항을 현장에 게시해 이용자의 부적절한 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운영 기간 중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바로 시설 가동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 용수교체 등 개선조치를 한 후 재차 수질검사를 해 수질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수경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심 속 오아시스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염병 및 설사 환자 이용금지, 영·유아에 의한 분변 오염 금지, 용수의 음용 행위 금지, 자전거 등 진입 금지, 음식물 및 이물질 반입금지, 반려견 출입금지, 신발 착용 금지 등 이용자들의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실천이 아닐까 싶다.

독자광장

서민경제 악형향 보험범죄 근절

대다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보험범죄에 대한 단속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니 절대 근절하여야 한다.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 허위 입원 및 살인. 상해 등 보험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법질서를 훼손하고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들의 보험료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어 엄정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먼저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는 가해자. 피해자 공모로 교통사고 유발 또는 경미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과장된 통증 호소 및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정비업체열 중고부품이나 비순정품을 순정품으로 속여 수리비용 과다 청구 행위이다.

생명보험 관련 불법행위로는 기왕증 은닉, 대리진단, 의료보험증 도용 진단 등 건강상태 허위고지 및 보험사고 일자 조작으로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금 편취, 고의적으로 신체피해(살인·상해·자해)유발 후 보험금 청구 행위, 보험사고 위장 및 사고 발생 후 위법행위(장해등급 상향 또는 치료기간 연장 등)이다.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는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 보험금 청구, 실제 피해액을 부풀려 과다한 보험금 청구·편취 행위이다.

다음으로 기타 요양보험, 산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인데 병원의 요양급여 청구 관련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의료보험금 청구·편취,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보험금 청구·편취 등이다.

위와 같은 범죄는 형법(사기)제347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절대 근절하여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한다.

/여수경찰서 봉산파출소 진병진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3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주필 李斗憲 편집국장 朴元雨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62	편집부 (062) 720-1070	기사제보
경제부 (062) 720-1066~67	기획실 (062) 720-1005	•TEL (062) 720-1050~54
사회부 (062) 720-1050~54	논설실 (062) 720-1032	•FAX (062) 720-1080~82
사회2부 (062) 720-1043~45	월간국 (062) 720-1006~07	•E-mail jndn@chol.com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관리국 (062) 720-1012	광고문의
서부권본부 (061) 285-9816~17	판매국 (062) 720-1098	•TEL (062) 720-1016~17
문화체육부 (062) 720-1071~72	사업국 (062) 720-1011	•FAX (062) 720-1020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E-mail jnmi1000@hanmail.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 인쇄처 주식회사 광주일보사

사설

광주·전남 공동현안 머리 맞대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현안을 두고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상생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공항 이전을 비롯해 빛가람복합혁신센터 건립과 발전기금 등 사업마다 충돌하는 탓이다. 이를 바라보는 시·도민들은 비판적 시각을 지나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군공항 이전은 예비이전지역 주민설명회가 무산되면서 행정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시는 올 상반기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물거품이 됐다. 더구나 유력한 후보지였던 무안군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갈등은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군공항 이전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와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복합혁신센터 국비 지원을 두고도 대립 중이다. 광주시가 행안부에 국비 지원액을 절반씩 나눠 달라고 요청하면서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혁신도시 발전기금이 자리하고 있다. 기금 조성 시기와 규모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시·도가 운영 중인 위원회와 협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생발전위원회, 혁신도시공공기관장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별무소득이다. 정기모임을 통해 현안을 논의는 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다는 얘기다. 9월에도 상생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다.

광주·전남 공동현안을 놓고 갈등이 빚어진 것은 소지역주의에 매몰된 때문이다. 한 치의 양보 없이 이익만 누리려는 행정은 자칫 지역 간 소모적 경쟁으로 이어지고 이 같은 양상이 고착화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시·도는 현안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일본 수출규제에 광주 산업계 암운

일본이 반도체 소재로 시작한 2차 수출 규제를 조만간 실행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산업계도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상의가 발표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영향과 대응계획'에 따르면 일본 부품·소재와 장비를 사용하는 75개사 가운데 57.3%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광주지역 제조업체와 무역업체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원인은 원청기업의 발주 또는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또 재고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대체 부품소재를 조달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이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과 금형은 내수 투자 위축과 일본 수출에 대한 우려로 부정적 의견이 많다. 기계업종은 수치제어반과 산업 자동화 설비용 컨트롤러 등 핵심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기·전자는 반도체와 가전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일본수출규제와 직접된 연관된 품목이 적어 단기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 품목 확대와 한·일 경제 갈등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부품·소재·장비 수급 안정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서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비 지원, 규제 특례조치 확대, 피해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고 있다.

관련 업체나 광주시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함께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다른 나라에서 수치제어반을 수입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기대되는 국립광주박물관의 행보

기자수첩

이보람
문화부 기자

1975년 신안 증도 앞바다에서 신안해저선이 발견됐다.

이듬해 시작된 발굴 작업에서 건져 올린 엄청난 양의 문화재를 보관·연구·전시하기 위해 지역의 박물관 건립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지금의 국립광주박물관이 생겨났다.

광복 이후 우리 손으로 지은 최초의 지방 국립박물관으로 광주·전남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1978년 12월 6일 개관했다.

박물관은 최근 건립 목적에 맞는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18일 중국 자주요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특별전 '중국 자주요 도자 명품전-흑백의 향연'이 막을 내렸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과 맞물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의 포용성을 세계에 알린 이번 전시에는 9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자주요는 중국 허베이성 한단시 츠현에 위치한 도자기 가마로, 남북조시대부터 오늘날까지도 도자기를 만드는 중국 북방 최대의 민간 가마다.

이번 전시에서는 중국 1급 유물 13점을 포함한 자주요박물관 대표 소장품 117점을 선보이며 시대별 자주요의 특징과 기법, 도자기 베개와 도자의 변화상 등을 조명했다.

이와 함께 무역선인 신안선에 실려 있던 2만여 점의 중국 도자기 중 자주요 도자를 선별해 전시함으로써 원대 자주요 도자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되는 무역품으로도 선호되고 있었던 모습을 잘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또 박물관은 국내 최초로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박물관과 문화 교류를 준비 중이다.

지난달 24일 파이지예바 바실라 솔리호브나 우즈베키스탄국립예술박물관 관장을 만나 예향의 도시 광주와 어울리는 전시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국립광주박물관은 7만2,000여 점의 유물을, 우즈베키스탄국립예술박물관은 1억 여 점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어 두 기관의 만남 자체로도 큰 의미를 지닌 자리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박물관에는 이미 우제길, 허달재 등 광주·전남 작가 11명의 작품 670여 점이 전시돼 있어 앞으로의 국립광주박물관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